

KREI NEWSLET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4년 12월 29일 발행 (월간·비매출) 등록 서울 라-02663(1982.4.29) 발행·편집인 이정환(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인쇄인 김재국/(인쇄·주)문원사

쌀·DDA·FTA 협상 방향과 전략 제시

국제세미나 및 토론회 등 20여 차례 토론의 장 열어

우리 연구원은 올해 162개 연구과제를 수행해 132과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는 내년으로 이월되어 연구가 계속된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WTO/DDA 협상과 농업정책 개혁 세미나' 등 국제학술세미나를 5차례, '개방화 시대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10차례, FTA 관련 공청회를 2차례 개최했다. 또한 쌀협상 관련 전문가들과 농업인단체, 언론관계자 등과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설명회를 통해 협상결과를 올바르게 알렸으며 쌀협상 관련 연구를 통해 협상을 지원했다.

올해 국제교류 사업도 어느 해 보다 활발하게 추진해 총 36건의 국제교류를 가졌다. 3월에 호주 농업자원경제국과 12월엔 중국농업부 정보중심국 등과 MOU를 체결했고, 국제연구기관과 7건의 공동연구도 수행했다. 또한 17차례 국제학술회의에도 참가했으며 외국인 내방도 10여 차례 있는 등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제연구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하여 국제화를 선도해 가고 있다.

특히 올해 우리 연구원은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시의성 있는 연구의 중간결과물을 신속하게 알리고자 'KREI농정연구속보'를 12차례 발간해 수요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농정연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국내외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해 주요 농정주제를 선택해 15차례의 KREI 세미나를 가졌으며, 농경토론회도 농정현안 이슈를 선정해 6차례 개최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및 전산교육도 55건 실시했으며, 직원들의 교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KREI 교양강좌도 분기별로 개최했고, 음악회도 두 차례 가졌다.

올해 관측사업도 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했고, 속도,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 PDA를 활용한 신지정보 수집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해외정보 수집체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획기적으로 관측사업을 개선했다.

우리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경사연 문석남 이사장 내원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이 12월 10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이사장의 연구원 방문은 올 봄에 연구원을 방문해 업무보고 받은 것을 점검하고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이정환 원장의 인사에 이어 박성재 기획조정실장이 연구원인 한 해 동안 수행한 업무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이사장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했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12월 21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

우리 연구원은 12월 21일 대회의실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대응과 운영 활성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어 150여명이 참석해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성배영 前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려 우리 연구원 허길행 부원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토론을 했다.

주제발표에서 허길행

부원장은 "연구결과 현 도매시장 체제로는 도매시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정토론 등을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여건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직불제 도입 필요성 제기

‘직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2월 8일 개최



직불제 중장기 확충방안 토론회를 우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12월 8일 개최

우리 연구원은 12월 8일 대회의실에서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길행 부원장의 사회로 열려 먼저 우리 연구원 박동규 연구위원이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쌀소득 안정대책에 대한 농가의 이해가 다소 부족해 정책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DDA 협상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발작물에 대해서도 쌀과 같은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농가에 소득지원이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가 등록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 장태평 농업구조정책국장이 ‘직접지불제 조정 및 효율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장 국장은 발표를 통해 직접지불제의 추진현황, 도입의 필요성, 시행여건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장 국장은 “현행 직접지불제는 다양한 종류의 직불제의 혼재, 농업구조조정 및 직불제 상호간 상충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직불제 확충의 기본 원칙을 전체 농정의 틀 속에서 목표를 설정한 뒤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학계, 언론계, 농민단체에서 참여해 직불제의 기본 틀 및 개별 직불제의 발전방안과 농업구조조정, 직불제간 상충성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中, 농업부 정보중심과 MOU 체결

우리 연구원은 12월 10일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에서 농업관측정보센터장과 중국농업부 정보중심 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보교류협약으로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북경신발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산동수광체소도매시장의 농산물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농업관측사업을 위한 분석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과의 농업정보교류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은 중요한 국가 농업정보기관이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이번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과 협약을 계기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농업정보수요를 충족하고, 인적교류와 공동 관심분야 연구 등을 통해 중국과 교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수상

우리 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인 (주)미력은 12월 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가진 제4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모집

우리 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2005년 1월 10일까지 입주할 신규업체를 모집한다.

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관련 업체는 연구원 홈페이지나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www.krei.re.kr/kreiabbc)를 참조하고 연구원 창업보육센터(전화 02-3299-427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KREI, FTA포럼 개설

우리 연구원은 지난 12월 1일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당면한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FTA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FTA 포럼’을 개설했다.

포럼의 회원 자격은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 해당 공무원, 국내연구기관 연구원, 학계, 생산자와 농민단체 전문가, FTA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소 및 대학 관계자 등이다. 그 밖에 FTA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포럼의 회원가입은 연구원 홈페이지 FTA포럼(<http://forum.krei.re.kr>)

에서 하면 된다.

우리 연구원은 FTA 포럼을 통해 FTA 관련 정보를 공유, 교환하며 사이버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해 FTA와 관련된 폭 넓은 의견교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포럼에서는 FTA 관련 최신소식란, D/R, 자료실, 주요 연구결과물 게시란을 마련해 놓았다. 또한 필요시 FTA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FTA 포럼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포럼대표인 권오복 부연구위원(Tel. 02-3299-4210, obkwon@krei.re.kr)에게 문의하면 된다.

中, WTO 가입 이후 고추, 마늘 등 채소류 수출 급속히 증가

중국 고추, 마늘의 생산·유통·수출 동향 및 정책세미나 개최



농업관측정보센터가 개최한 중국의 고추·마늘 관련 정책세미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고추, 마늘 등 채소류의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가 12월 16일 대회의실에서 ‘중국 고추, 마늘의 생산·유통·수출 동향 및 정책’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李鑽平 박사가 발표해 밝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李 박사는 ‘중국 고추, 마늘의 무역과 유통현황’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중국의 채소수출은 WTO 가입 이후인 2002년에 전년보다 18% 증가하였고 수입은 오히려 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세계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고추·마늘의 2003년 수출량은 2001년보다 고추는 4배 이상, 마늘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于愛芝 연구원은 ‘중국 고추, 마늘의 생산과 비용분석’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채소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가공 기술 수확 후 선별 포장, 냉장 운송체계 등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수확 후 감모율은 선진국의 2~5%보다 크게 높은 30%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 농업과학원 원예연구소 毛朋利 연구원이 ‘중국고추의 가공 현황’이란 제목으로, Bingshuan 그룹 李安民 사장이 ‘신동성 마늘 가공과 수출현황’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 뒤 오세익

력 체결 이후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중국의 고추·마늘의 생산·유통·수출동향 및 정책 분석’ 과제와 연계해 이루어졌다.

고대와 정보상호이용협정 체결

우리 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도서관(관장 김승욱)과 12월 3일 정보상호이용협정을 체결하였다.

고려대에는 본교에 중앙도서관 외에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토론을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연구원이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와 2000년 5월 연구협

4개의 주제별 분과와 조치원 캠퍼스 도서관 등 총 6개의 도서관이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연구원은 고려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영, 농생명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제학관련 단행본과 학술저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모색 토론

우리 연구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동으로 12월 23일 a7센터 중회의실에서 DDA/FTA 개방화 시대의 농식품 수출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의 교역질서가 WTO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DDA 농산물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국가간에 FTA 체결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코자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충북대 성진근 교수 사회로 열려 우리 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이 ‘FTA에 대비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어 중앙대학교 김종기 교수가 ‘원예작물 수출 확대방안’이란 제목으로, 안양대학교 김동환 교수가 ‘가공식품 수출 확대방안’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 뒤 농식품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KREI 송년음악회 갖고 한해 정리



가수 이정선씨와 윤연선 씨를 초청해 가진 KREI 송년음악회

우리 연구원은 12월 21일 연구원 대회의실과 휴게실에서 한해를 돌아보는 KREI 송년음악회를 가졌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음악을 들으며 올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개최, 많은 직원들이 참

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음악회에는 1970년대에 ‘젊소년’, ‘몽계구름’ 등 많은 히트곡을 낳은 가수 이정선씨와 ‘얼굴’ 등의 노래를 불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가수 윤연선씨를

초청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 연구원 식구들이 틈틈이 준비해 온 케틀 등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음악회가 끝나고 휴게실에서 대부도 와인과 갖가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8% 관세화유예의 의미

서진교 연구위원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그 동안의 쌀 협상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화를 이루는 대신 기준기간 쌀 소비량의 8%(약 41만 톤)에 해당하는 외국산 쌀을 사주고 이중 일부는 시중에 방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쌀 협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최종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보아야겠으나, 정부의 이번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이와 같은 유예의 조건을 수용하고 쌀의 관세화를 다시 한번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관세화로 전환할 것인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과연 어떠한 결정이 향후 후회하지 않을 올바른 선택일까?

관세화와 관세화유예는 모두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선택은 쉽지 않다. 쌀 농가의 소득감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쌀 농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국민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득실도 따져 보아야 한다.

동등성분석 결과는 MMA 7.5%

관세화와 유예 사이의 동등성 분석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따른다. 특히 관세화에 따른 예상 수입량 전망은 쌀의 국제가격, 환율, 관세감축 폭과 저율관세물량(TRQ)의 확대 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변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여 관세화시 예상되는 2014년 쌀 수입량을 전망해 보면 의무수입물량(MMA) 4.4~15.5% 상당량으로 예상되며, 평균적으로는 MMA 6.3~6.4% 상당량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단 MMA 6.3~6.4%가 동등성 수준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이 수준을 초과하여 쌀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50%나 된다. 이와 같은 예상 밖의 수입급증 위험을 줄일 경우, 동등성 수준은 MMA 7.5% 상당량까지 올라간다.

유예 도중 관세화 선택 여지 있어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유예의 조건인 8%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관세화할 경우 예상 밖의 수입급증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2014년 예상되는 수입량은 MMA 7.5% 상당량이므로, 8% 관세화유예는 분명 관세화보다 불리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관세화유예는 '유예도중 관세화'라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화유예를 선택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4년까지 유예를 계속할 수도 있으나, 도중에 언제든 관세화로 전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관세화를 유예하고 이후 도하게 발아젠다 협상 결과를 보아 가며 관세화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관세화 전환조건 UR보다 유리

특히 이번 쌀 협상 잠정안은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시 잔여 유예기간 동안 의무수입량의 추가적인 증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이전 우투과 이라운드(ITR) 농업협정문에 비해 전환국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 UR 농업협정문에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잔여 유예기간동안에도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하며, 이 수준은 이미 관세화한 일반 품목의 저율관세물량 증량 폭(0.4%)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도 지난 1999년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전환당시 의무수입량 7.2%에서 0.4%가 추가되어 2000년 기준 일본쌀의 저율관세물량은

7.6%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쌀 협상 잠정안에 따르면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할 때 의무수입량의 증가는 전환당시 의무수입량이 일반 품목의 저율관세물량을 초과하는 한 증량의 의무가 없다.

8% 유예, 실제 6.6% 유예와 동일

이와 같은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세화유예시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2014년의 수입량을 전망하면 MMA 5.2~8.0% 상당량으로 나타나 관세화시에 비해 수입량 변동 폭이 줄어든다. 또한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입량도 MMA 6.5~6.6% 상당량으로 전망되어 2005년부터 관세화하는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8% 관세화유예는 유예도중 관세화를 고려한다면 8%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6.5~6.6%라고 보아야 보다 정확해진다.

따라서 관세화유예는 도중 관세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2005년부터 관세화를 이행하는 것에 비해 0.2%(약 1만 톤)의 추가 수입이라는 비용은 들지만 대신 8% 이상 수입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관세화유예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문제는 아니다.

관세화를 하는 것이 쌀 산업의 구조조정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것은 유예를 선택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예기간 사이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도 관세화보다는 유예를 선택한 후 향후 도하게발아젠다의 결과를 보아가며 관세화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

DDA 농업협상, 동향과 과제

임 소 영 연구원

DDA 농업협상은 지난 8월 기본골격이 극적으로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특별회의가 진행되었다. 2004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농업협상은 전체적으로 진행방식과 논의의제에 관해 국가별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보다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이후 농업협상에서는 비종가세의 증가세 전환 문제를 필두로 하여 시장접근 분야, 국내보조 분야, 수출경쟁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들이 다루어졌다. 각 국은 합의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쟁점별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여 향후 협상과정에서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제에 대한 그룹별 입장차 뚜렷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케언즈 그룹 및 G20으로 대표되는 수출국들이 실질적인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며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증량과 TRQ 관리방식의 개선, 급격한 관세감축을 주장한 반면 EU, G10 등 수입국들은 점진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여 수출입국 간의 의견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박스, 블루박스, 품목별 감축대상 보조금(AMS) 상한 설정 등 국내보조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케언즈 그룹 및 G20이 미국과 EU의 국내보조를 최대한 감축하도록 공세를 취하였으나, EU와 G10이 국내보조 분야에 관해서 공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개혁 과정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보조의 점진적 감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국영무역 기업의 운영의 투명성, 수출신용 등에 있어서 미국, EU와 케언즈 그룹 및

G20이 대립하며 수출국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

농업협상은, 논의 의제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갔다는 의장의 의도와는 달리,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정치적인 타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번 12월 특별회의에서는 협상 그룹별로 타 그룹과의 공조 및 연대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EU는 G10 및 G33의 회원국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연대하고자 하였고, G10은 아프리카 그룹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며, G20도 개도국 그룹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그룹별 비공식 협의를 통해 타그룹의 의사를 타진하고 사안별로 공조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은 향후 협상이 가속화 될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은 그린박스와 품목별 AMS 상한 설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블루박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평소 라이벌로 인식되던 EU가 이에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외에는 미국의 입장 표명이 일반적인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 향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농업위원회의 그래서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논의 의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미국의 대신, EU의 집행위원 교체 등 회원국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보류한 채 기존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2월에 이루어지는 특별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의제별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게 된 원인 중 하나인 회원국 내 문제가 일단락되어 내부적으로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서 의장은 7월 회의에서 모델타터 1차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협상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일부 회원국들이 협상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여 2005년 말 홍콩 각료회의에서 모델타터가 타결되기를 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그래서 의장의 협상 진행 방식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4년 위기에 봉착했던 WTO 협상이 재활성화 되어 향후 논의의 기초를 마련한 중대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그러한 단계들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쟁점별 입장 표명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상 흐름에 발맞추어 사안별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 의제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 선정 및 취급 문제, 국내보조 감축, 그린박스 및 블루박스의 요건 등에 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같은 국가들과 사안별로 공조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G10과 G33 뿐만 아니라 미국과 EU와의 협력관계도 더욱 긴밀해져야 할 것이다. ■

2004년도 세계농업 회고

2004년은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다. 세계 쌀 수급동향과 쌀이 가진 다원적 기능에 대해 주목하는 사이에 새해 벽두에 발생한 뉴스가 중국의 곡물 수급 불안과 이에 의한 국제가격 폭등이었다.

중국의 곡물 공급부족

중국은 지난 5년 연속 곡물 생산이 소비를 하회하여, 재고로서 공급부족을 충당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도달해 2003년 10월부터는 옥수수 수출을 금지하였고, 2004년 초에는 쌀 수출도 일시 금지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3월 중순 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하여, 대두는 16년만에, 옥수수는 8년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세계시장을 교란하였다. 한국·일본과 같은 곡물 공급부족의 동아시아형 농업문제가 중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의 조류독감 확산

연초 아시아 축산업에 타격을 가한 것이 조류독감이다. 조류독감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시작하여 1월초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를 거쳐 미국, 캐나다까지 확산되었다. 무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가축질병도 자유화되는 경향이 있다. 태국의 3,600만 마리를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1억 마리의 가금이 폐기 처분되는 동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축산업이 번창하는 계기가 되었다.

DDA 협상지체와 기본골격 합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대폭 지체되는 가운데 기본골격이 합의되었다. 당초 농업모델타는 2003년 3월이 타결 기한이었으나, 그해 9월의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까지 실패를 거듭한 후 금년 8월 1일 기본골격이 합의되었다. 향후 협상은 2005년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빨라야 2006년 12월 말에야 타결 가능성이 높다. 지체된 배경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다.

세계 각국의 FTA 체결 급진전

WTO에 의한 시장개방이 부진한 가운데 반사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지역주의 강화이다. 미국이 적극적이어서, 중미 5개국, 칠레, 호주, 태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남미는 메르코스와 칠레, 안데스공동체가 합의하여 남미 10개국의 FTA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시아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활발히 협상이 진행되는 동시에, 일본·멕시코, 한국·싱가포르, 태국·호주 등이 합의하였다.

농산물 무역분쟁 확산

무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분쟁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EU

간에는 바나나분쟁, 호르몬쇠고기분쟁, 수출촉진세분쟁 등이 계속되고 있다. FTI는 지난해 3월부터 미국의 수출촉진제도(FSC)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미국에 제재조치를 발동했다. 이 제재는 WTO 출범이후 미국에 대한 최초의 보복조치이다. 또, 브라질은 미국의 면화보조금에 대해 WTO에 제소, 위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은 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GMO에 대한 규제 완화

FTI는 지난 5월 GM 옥수수의 역내판매를 6년만에 허용했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금지를 해제하였다. 인도도 GMO 6개년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FTI는 GMO 판매허용에 앞서 표시제를 의무화했다. GMO는 주로 사료와 식용유용으로 소비되는 것이 중심이나, 중국과 인도는 GM 쌀 등 식용 개발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몬산토사는 GM 소맥 개발을 중단하였다. 옥수수와 대두는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나, 인간이 직접 먹는 소맥은 소비자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농산물 무역흑자 '제로'

세계 농산물무역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미국의 농산물 무역이 부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2001년 회계연도(2000. 10~01. 9) 137억 달러의 흑자에서 2003년 105억 달러로, 그리고 2004년 96억 달러에서 2005회계연도는 수출입 모두 560억 달러로서 무역흑자는 제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인은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의한 수출 감소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러시아 등의 수출강국과의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이다.

브릭스(BRICs) 농업대국으로 부상

인구 대국이면서 자원대국으로 고도성장을 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은 40년후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6대 경제대국을 형성한다. 브릭스는 광대한 농지자원을 배경으로 농업대국을 등장, 국내 자급을 유지하면서 수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DDA에서도 브라질, 인도, 중국은 G20을 주도하고, 브라질과 인도는 미국, FTI, 호주와 함께 NG5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브릭스의 경제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국 쌀 협상 이후의 과제

우리나라 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유예기간, MMA 증량, 시판율 등에서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선방, 20세기 말의 유물인 특례조치를 21세기까지 연명해 두었다. 부수적인 수확은 '개도국 지위유지'이다.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국내 쌀농업의 체질을 어떻게 강화해, 쌀시장 완전개방을 언제 선택할 것인가에 집중될 것이다. <김태근 연구위원>

쌀 협상 막판 진통...농협법 개정, 농특위 시한 3년 연장

관세화 10년 유예 · TRQ 8% 잠정 결정

쌀 관세화 협상과 관련해 12월 중순까지 미국, 중국 등과의 쟁점 사항에 대한 막판조율이 있었으나 완전타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 10년, 저율 관세물량(TRQ) 8%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민단체가 재협상과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쌀 협상 시한이 임박했으나 아직 쌀 협상 참여국인 9개국과 수입쌀 배정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들은 잠정 합의안 중 수입쌀의 30% 시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국내 쌀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관측하였다.

이처럼 쌀 관세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12월 22일 국회에 출석해 협상을 올해 말까지 끝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정부의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체, 전체적으로 협상 상대국인 9개국과의 합의 내용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겠다고 밝혀 올해 안에 협상을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월 20일 중앙농정심의회, 12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보고, 12월 23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국내 여론 향배가 쌀협상 종결 선언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법 개정, 농특위 시한 3년 연장

국회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과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특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늦어도 내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장의 직위가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농협중앙회는 2006년 상반기까지 신용·경제사업 분리계획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상임조합장 연임은 2회로 제한되고, 직선 조합장 선거관리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또 이날 국회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산림조합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개정안'도 통과시킨 것을 비롯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도 의결되었다.

한편, 정부는 12월 2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예농업인력

20만호 육성, 농협 일선조합 자율합병 유도, 쌀시장 개방 확대 등 농지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고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은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 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촌주민 교육문제 가장 큰 불만...도시민 농촌 인식 변화

12월 9일 농림부가 (주)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농신어촌과 도시의 5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읍 면인 농신어촌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10명중 7명꼴로 자녀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고, 월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근로자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농신어촌은 집을 떠나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12.9%로 도시(6.2%)보다 두 배 이상 높아 교육비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12월 14일 농어촌연구원이 전국의 학부모와 대학생 935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1.6%가 농촌의 기능과 역할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신선한 공기, 경관 등으로 국민에게 휴식·휴양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전통적 개념의 응답은 20.3%로 집계돼 휴식 공간이라는 반응보다 낮아 농촌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싱가포르 FTA 타결...내년 22개국과 FTA 추진

노무현 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11월 29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4'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선언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조문 정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협정에 서명하고 내년 초 국내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FTA 발효시점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중반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내년 중 7개 FTA 협상 대상(22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일본과도 내년에 FTA 체결을 목표로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공산품 및 농림수산물 분야의 개방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가 커 최종 협상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동원 전문연구원>

“술산업 활성화 위해 주세 차등화가 바람직”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12월 22일 aT센터에서 개최

우리 연구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2월 22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속주와 전통과실주 등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및 제도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어 업계 사례 발표와 연구발표, 종합토론으로 나눠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연구원 허길행 부원장 사회로 열려 나장연 한산소극주 대표가 민속주 업계 현황을 발표했고, 이어 윤병태 와인코리아 대표가 포도주 산업 현황에 대해, 임익재 연수당 대표가 복분자주의 산업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중앙대 정헌배 교수가 ‘외국의 농가 및 소규모 주류생산 지원제도의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술산업의 실태와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날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식의 주세징수 및 주류 관리정책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농민주나 민속주로 생산되는 발효주는 10kl(증류주 5kl) 이하 영세업체는 완전 면세하고, 100kl(증류주 50kl) 이하 업체는 부가카치 영세율 적용 및 주세 50% 감면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했다.

지정토론은 박륙담 한국전통주연구소 소장, 최종욱 경북대 식품공학과 교수, 최대휴 농림부 식품산업과장, 김낙희 소비경제과장, 허시명 전통술 품평가 등이 참

여해 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올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우리 연구원은 연구수요에 부응하는 더욱 내실 있는 연구수행과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공채로 연구원과 행정직원을 12명을 선발해 12월 1일자로 임명했다.

우리 연구원의 한 식구가 된 박사급 연구인력은 농촌인력 교육개발 분야에 김영생, 마상진, 농업정책분석에 강혜정, 농산물 수급개량 분석 서성천 씨가 각각 합격해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 석사급 연구인력은 농산물 수급 분석 박미성, 심승보, 장재봉, 농산물

무역세계농업 박한진, 유익선 씨가 한식구가 되었고, 행정직원 맹자경, 이정현 씨가 합격해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친환경 연구관련 공로자 수상

우리 연구원은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연구과제 연구자문위원으로 사례지역 농기조사, 현지 여론수렴, 영농장부 작성 등의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담당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기여한 공로로 이환의 씨와 이선우 씨에게 완장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제초기와 복합기를 전달했다.

원장, 농정심의회 부위원장 위촉

이정환 원장은 주요 농정시책과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을 심의하는 제3기 중앙농정심의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지난 12월 20일 농림부에서 첫 회의에 참석했다.

김창길 박사, OECD 부의장 재선

김창길 연구위원은 12월 8일부터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제20차 합동작업반 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재선되었다. 부의장 임기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이며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 회의의 의장단회의 참석, 의제 발굴 및 선정, 논의, 사무국 과업평가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농업전망 2005’, 1월 28일 코엑스에서 개최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전망 2005 발표대회’를 오는 2005년 1월 28일(금)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전일대회로 개최한다.

‘농업전망 2005 발표대회’는 총 5부로 나눠 제1부 ‘도전’이란 주제로 싹싹상 이후 국제동향, 영향, 유통을 주요 초점으로 살펴보고, 2부에서는 ‘새로운 활로’란 주제로 친환경농업, 식품안전체계, 농산물 유통, 수출, 지역농업, 관광농업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또한 제3부는 ‘전망 I’로 농업·농촌 경제동향과 전망을, 4부는 ‘전망 II’로 곡물, 축산, 임산물 동향과 전망을, 5부는 ‘전망 III’으로 채소, 과일, 과채 동향과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참가 신청을 원하면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주 제 : 한국농업의 도전과 비전
- 일 시 : 2005년 1월 28일(금) 09:30~19:30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 볼룸(삼성동 소재)
- 접수 및 안내 :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